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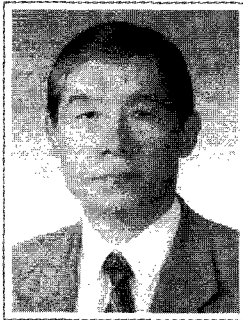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 운영 계획과 전망 -

한 경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장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의 설립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지난 4월 17일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 IAEA 사무차장, OECD/NEA 사무국장, 주한 필리핀 대사 등 외교 사절, 그리고 국내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INTEC) 개관식을 가졌다. 이 센터의 개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 교육 훈련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입지를 국제 사회에서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이래 한국 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핵연료 국산화 등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제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일체형 원자로 개발과 양성자 가속기 개발 사업단 발족 등 원자력 선진국으로의 면모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자격을 갖춘 인력의 적기 확보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원자력 인력 양성의 시발은 1960년 IAEA의 도움을 받아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과정을 개설한 것이었다. 1969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서울 공동동에 원자력 인력 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연수원 건물을 착공하여 1971년 완공하였다.

이 당시 교육 훈련은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과 방사선 장애 방어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기술 수혜국으로 IAEA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1973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민영화와 함께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면서 원자력연수원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 분야로 교육 훈련 영역을 확대하면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수원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원자력연수원은 1,5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1985년에 현재의 대덕 단지로 이전하였으며,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한 전문 기술 과정의 개발과 운영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때까지도 국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IAEA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으로부터 교육 훈련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의 원자력 기술 자립이 본 궤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의 성과를 IAEA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제한적인 부분이나마 원자력연수원이 IAEA 지역간 훈련 과정 유치,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원자력 분야 개발 도상국 기술 공여 연수 사업을 착수하면서 우리 나라가 IAEA의 기술 수혜국에서 기술 공여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특히 IAEA와 개발 도상국들이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 달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이들은 한층 더 많은 교육 훈련을 우리 나라에서 수행해 주기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 훈련 수요 증대로 1995년 IAEA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IAEA 회원국 장학생 훈련 사업 수행을 위해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연구실-OJT 훈련에 착수하였다.

IAEA는 정부의 지원과 그간 원자력연수원이 축적한 국제 교육 훈련 과정 운영 경험과 인력, 그리고 외국인 훈련생 숙소 및 교육 시설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개관식(2002. 4. 7)

확보 계획 등을 높이 평가하여 1997년 '우수 국제 연수원' 인정서를 발급하였다.

우수 국제 연수원 인정서 발급의 후속 조치로 1998년에는 IAEA와 과학기술부간에 IAEA 국제 교육 과정 유치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정부는 증가되는 개발도상국 요원 교육 훈련 과정들을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원자력연수원을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독일 Karlsruhe 원자력연구소 및 일본원자력연구소의 연수원들과 같이 국제적인 수준의 원자력연수원으로 육성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의 건

설을 위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특히 INTEC의 건설은 원자력연수원이 우리 나라가 IAEA 기술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는 중심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제 원자력 기술 및 인력 교류의 산실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연수원이 국제 원자력 연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1997년 70억 원 규모의 국제 연수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 연도에 2억원의



〈표〉 연수동(아토피아관) 교육 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주요 장비
대회의실 (우남 오디토리엄)	140석	3개국 동시 통역 시스템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중·소 강의실	60석(1) 40석(1)	전자칠판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사이버 설비
중·소 회의실	30석(1) 15석(1)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회의용 마이크
중앙 제어 및 VOD 제작실		녹화 및 녹음 설비 모니터링 및 VOD 제작 설비

예산을 확보, 연수관 설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그 해 말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하여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이 사업이 잠시 중단된 후, 정부는 그간에 추진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제 교육 훈련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당초 70여억원 규모의 절반 수준인 36억원의 예산으로 조정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0년 8월 축소된 규모에 맞추어 재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10월 16일 원자력연구소 내 부지에 건설된 국제연수관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1년 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2년 1월 11일 연수동과 훈련생 숙소동을 포함한 국제 연수관을 완공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국제연수관의 이름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연수동을 아토피아관(Atopia Hall), 숙소동을 누리관(Nuri Hall)이라 부르게 하는 한편, 연수동 안에 있는 국제 회의실을 우남오디토리엄(Woo-Nam Auditorium)으로 명명하였다. 이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평화적 이용 역사의 장을 열게 만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아호를 딴 것이다.

시설 및 규모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연수동과 숙소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수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총건평 1,980㎡(약 630평)로 각종 규모의 회의, 워크숍, 세미나 및 훈련 과정을 개최할 수 있는 대회의실, 중·소 회의실 및 중·소 강의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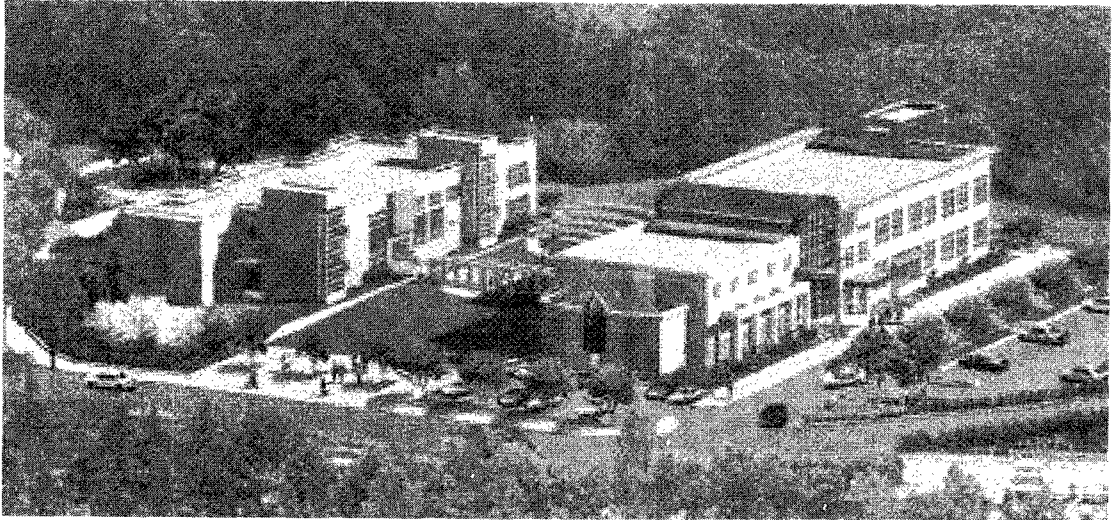
있으며 동시 통역 설비, 각종 시청각 설비, 사이버 교육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그 현황은 〈표〉와 같다.

숙소동은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1,300㎡(약 417평)로 콘도미니엄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최대 48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숙소동 내부에는 취사실·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냉장고·세탁기·TV·PC 등도 갖추어져 있다.

운영 계획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연구소의 국제 행사(훈련 과정·워크숍·세미나·각종 회의)에 활용되지만 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소 윗타리 안에 있는 원자력 기관(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단, 한수원 원자력환경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행사에도 개방하고 있다.

이 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www.kntc.re.kr)에서는 INTEC에 관한 교육 과정 및 시설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본 센터가 개관된 지 반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 IYNC(International Youth Nuclear Congress) 및 핵융합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IAEA 지역간 훈련 과정/워크숍(6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전경(연수동·숙소동)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기존에 실시하던 IAEA의 지역 훈련 과정을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나라 원자력 관련 산업체 등이 개발 도상국 원자력 사업 진출을 위해 개도국의 기술 요원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예정이다.

아울러 198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 연수 과정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IAEA는 기존 과정의 운영과 더불어 행정 업무의 일부를 회원국에 위탁하는 outsourcing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의 수용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의 준공을 계기로 원자력 분야의 일반 국제 회의, 워크숍, 자문위원회, 전문가 회의와 국제 학술 회의 등의 적극적인 유치

계획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및 안전성 분야, 비파괴 검사 기술 분야, 하나로를 이용한 동위원소 응용 기술 및 기타 원자력 응용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이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소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가 IAE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 훈련 센터로서 위치를 확고히 함은 물론, 베트남·중국 등과의 양국간 협력,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등 지역간협력, 기타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을 위한 원자력 종합 교육 훈련 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INU :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설립 사업 국내 유치의 기반 시설로도 활용할 것이다.

맺음말

우리의 의지 및 노력과 더불어 IAEA와 원자력 선진국의 도움으로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개발 도상국이 원자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또한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수함으로써 그들의 원자력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라는 범세계적인 커다란 목표 달성에 공헌하고, 장차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에 원자력연구소가 설립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